

수돗물관련 소비자태도 및 지식이 수돗물 음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영 신*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수질문제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수돗물에 대한 위협인지도는 객관적 정보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돗물 이용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인구적 변수를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심리적 변수 등을 고려하거나 그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인구적 변수(성별, 연령, 가계소득, 교육수준, 거주지역의 크기)를 선행변수로, 수돗물 관련 소비자태도 및 지식(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지식, 문제경험도, 위협인지도, 만족도)을 매개변수로 하여 수돗물음용적합도와 음용행동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환경관련 교사 359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5년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포, 평균, ANOVA(Scheffe' 추후검증), t 검증, 인과분석, 그리고 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는 응답자의 1.7%로 매우 낮았으나, 음용적합도에서는 16.4%가 적합하다고 답하고 있어 실제 행동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54.6%)는 '건강'으로, 심미적인 이유(냄새, 맛, 외관 등)가 23.3%, 선입견이 21.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와 지식은 교육수준에 의해, 지식과 문제경험은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수돗물에 대한 위협인지도에는 신뢰도, 경험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에는 신뢰도, 위협인지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돗물 음용적합도에는 성별, 연령, 신뢰도, 위협인지도,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신뢰도는 위협인지도, 만족도, 음용적합도의 가장 중요한 영향변수이다.

넷째, 연령이 많을수록, 수돗물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수돗물이 음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마신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